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리모트워크' 개최

관광스타트업 네트워킹 강화 위해 수도권 관계자들 지역 스타트업과 창업·투자 정보 등 공유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4일 도내 관광스타트업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d·camp(디캠프)와 함께하는 리모트워크 #전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선배 창업가, 창업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지역 스타트업과 하루 동안 함께 근무하며 창업·투자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60여 명이 참석해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함께 근무하며 궁금증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인사이트 키움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에게 꼭 필요한 투자/TIPS, 홍보 및 언론 대응 전략, 전라북도 창업 지원정책 등 3가지 주제별 소그룹 미팅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관광스타트업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를 비롯해 기자, 공무원 등과 교류가 적었던 만큼 프로그램을 통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재단 나상훈 관광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관광스타트업이 지역 내에서 다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4일 도내 관광스타트업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d·camp(디캠프)와 함께하는 리모트워크 #전북'을 개최했다.

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센터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캠프는 지난 2012년 19개 금융기관이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다. /장은성 기자

달하미술관 작가지원 2차 전시 개막

정읍시, 신태인·연지·수성서 8월 6일까지 진행

정읍시(정읍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달하미술관(3개소)이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지역 작가지원 2차 전시를 선보인다. 달하미술관은 통유리로 둘러싼 컨테이너로 제작한 간이 미술관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자 문화공간에 위치하여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달하미술관은 지난 3월 작가지원 전시 1차(장순, 최명수, 배기순)를 시작으로 5월 25일부터 2차, 9월 3차까지 순차적으로 작가지원 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2차 전시로 장택수, 장현화 작가 작품 22점을 전시한다.

달하미술관 신태인에서는 장택수 작가의 '정읍의 새, 천연기념물' 전시가 진행된다. 작가는 정읍에 서식하는 아름다운 새의 모습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공생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달하미술관 연지에서는 장현화 작가의 '글썸다 가게'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정읍의 9경과 우리 고장 사투리를 캘리



그래피 감성으로 표현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시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한다.

달하미술관 수성에서는 정읍시립미술관 작은 소장품전 '푸른 노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6점이 출품되며 작가들의 개성으로 표현한 푸른 '빛' 속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생각, 감정, 느낌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휴관일 없이 진행되며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태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지·수성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감상할 수 있다. /정은=김태환 기자

전주브랜드공연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전주한벽문화관, 관련 기자 간담회 가져... 마당창극 27일 개막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지난 23일 한벽공연장에서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공연과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진욱 연출, 배승현 안무, 정민영 주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의 개요와 기획 의도, 시놉시스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상설공연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6월에 진행되는 제16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 쇼케이스에 선정돼 진행되는 것"이라며 "7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오프닝 쇼케이스 공연으로 이번 작품이 올라가게 돼 대외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27일 개막을 앞둔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주한벽문화관 전통혼례청에서 진행된다. 이를 통한 체류형 관광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전라감찰사, 전라감영, 전주8경, 선자청 등 전주를 소재로 활용해 전주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녹아있고, 또 판소



리라는 예술적 요소를 핵심으로 현대적 요소를 더해 관객의 공감과 대중성까지 겸한 전통 공연의 해학과 우리 소리의 예술성을 두루 갖춘 작품이다.

한편 제작진에는 오진욱(연출), 배승현(안무), 홍정의(작곡), 정민영(주연) 등이 참여하며,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된 지역예술인 17명도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함께 할 예정이다.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인터파크티켓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원예체험 '테라리움 만들기'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6월 3일 오후 2시와 4시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원예체험 나만의 작은 정 '테라리움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26일부터 31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할 수 있다. 초·중·고생 이상 성인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한편 '테라리움'은 라틴어 '테라(Terra: 흙, 땅)'와 '아리움(Arium: 용기, 방)'의 합성어로 '용기 속 작은 정원'이란 뜻을 가지며, 자연을 그대로 축소한 형태로 식물을 투명한 유리용기에 담아 심고 기르는 방식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최근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들이 취미로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이번 체험은 어른들에게 지친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아이들에게 자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정읍시·정읍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는 지난 23일 정읍시 김명관 고택에서 정읍시청과 정읍소방서가 주최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읍시 김명관 고택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신고, △초동조치 훈련, △소화기 분사 훈련, △문화재 구조 및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훈련, △중요물품 반출 및 사후 복구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전북 서부권 문화재 돌봄센터는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평상시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소방시설 점검,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목조건물 관리 방법과 화재 대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해경 센터장은 "최근 산불 발생으로 문화재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관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확립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도내 5개 시군서 펼쳐진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5개 시군에서 '2023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하 한옥자원)'을 총 90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한옥자원은 2016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도내 한옥경관을 활용한 지역특화 공연콘텐츠 발굴 및 상설공연 운영을 지원

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매년 참여 시군을 선정해 뮤지컬, 연희극 등 다양한 장르의 전통예술 공연을 펼쳐 왔다.

올해는 27일 고창군과 임실군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 전주시, 10일 익산시, 24일 부안군에서 각 18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